

태풍

- 태풍이란 무엇일까요?
- 태풍은 언제 발생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나요?
- 태풍은 왜 주의해야 할까요?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여기에 연락하세요





태풍

006

01 태풍이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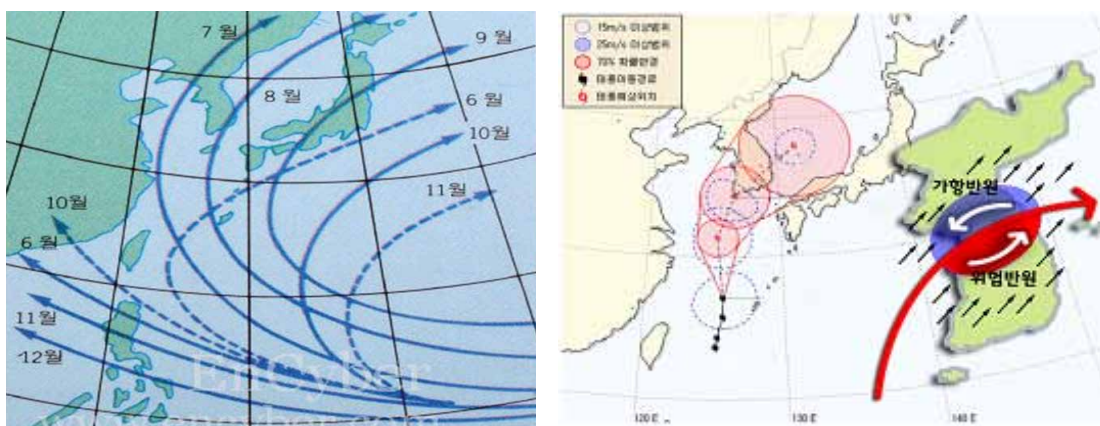
- 태풍은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는 적도 지방의 더운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 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으로서 열대 저기압의 하나입니다.
- 즉, 태풍은 적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17m/s(시속 61km)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발생 장소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여,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Typhoon,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 호주부근 남태평양에서는 윌리 윌리willy willy라고 합니다.



02

태풍은 언제 발생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나요?

- 태풍은 북태평양 북위 5도~30도 사이, 동경 120도~170도 사이에서 연중 발생해서 천천히 서쪽으로 진행한 후 소멸되는 형과 서쪽으로 진행 중에 점차 북상하다가 북위 20~30° 부근에서 진로를 북동쪽으로 변경한 다음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는 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겨울에서 봄철에 걸쳐서는 전자가, 여름에서 가을철 기간에는 후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 우리나라에는 한 해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고, 주로 8월-7월-9월 순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석 달 동안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태풍의 수는 전체의 91%이며, 아주 드물게 6월·10월에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 태풍은 저기압 기단의 풍향 속성과 태풍 자체의 이동속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통상 태풍 이동경로의 오른쪽 반원 지역에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0.3

태풍은 왜 주의해야 할까요?

1) 태풍의 피해 양상

- 태풍 피해는 태풍에 수반되는 풍랑, 해일, 호우, 강풍 등과 같은 이차적 현상에 의해서 그 양상이 좌우되고 피해 규모도 결정됩니다.
- 풍랑은 해안침식, 항만시설의 파괴, 해난사고를 일으키고, 해일은 침수, 전답 등의 염수해, 선박의 침몰과 충돌, 유목 등에 의한 피해, 제방도로 등의 파괴, 가옥의 파괴유실 등을 발생시킵니다.
- 호우는 축대붕괴, 산사태, 범람, 침수 피해를 일으키고, 강풍은 풍화작용, 송전선 절단에 의한 정전, 보행 및 작업 곤란, 전선합선에 의한 화재, 차량 전복, 가옥 철탑 등의 파괴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 태풍 피해는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는데, 도시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철로가 단전돼 출근길 전철 운행이 중지되기도 하고, 가로수가 차로를 뒤덮어 시내교통이 마비되며 바람에 날리는 간판과 나뭇가지 등으로 인명피해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태풍피해 순위

인명피해				재산피해			
순위	발생일	태풍명	사망·실종(명)	순위	발생일	태풍명	사망·실종(명)
1	'36.8.20~28	3693호	1,232	1	'02.8.30~9.1	루사	51,479
2	'23.8.11~14	2353호	1,157	2	'03.9.12~13	매미	42,225
3	'59.9.15~18	사라	849	3	'99.7.23~8.4	올가	10,490
4	'72.8.19~20	베티	550	4	'95.8.19~30	재니스	4,563
5	'25.7.15~18	2560호	516	5	'87.7.15~16	셀마	3,913
6	'14.9.7~13	1428호	432	6	'98.9.29~10.1	예니	2,749
7	'33.8.3~5	3383호	415	7	'00.8.23~9.1	쁘라삐룬	2,520
8	'87.7.15~16	셀마	343	8	'04.8.17~20	메기	2,508
9	'34.7.20~24	3486호	265	9	'91.8.22~26	글래디스	2,357
10	'02.8.30~9.1	루사	246	10	'07.9.13~18	나리	1,592

출처 : 소방방재청

2) 피해 사례

① 2002년 제25호 태풍 '루사'^{RUSA}

- 태풍 '루사'^{RUSA}는 괌 섬 동북동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부근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며 느린 속도로 북상하여, 2002.8.30 ~9.1일까지 전국에서 강한 폭풍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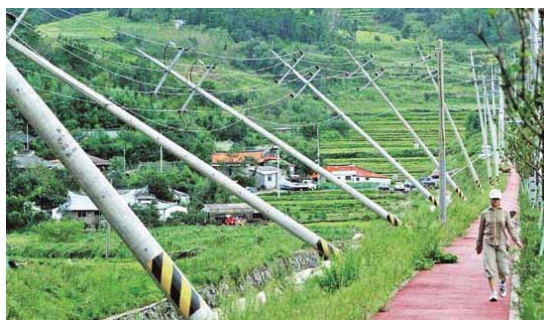


로 기상 관측 이래 유례없는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일으켰습니다.

- 특히 강원도 지방에 막대한 강수량을 기록하여 이재민 8만 8천여 명, 사망·실종 246명, 재산피해 5조 1,419억여 원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②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MAEMI}

- 태풍 '매미'^{MAEMI}는 괌 섬 북서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쪽으로 빠르게 북진하여, 2003.9.12일 제주도를 통과했고 13일 남해를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 131명의 인명피해와 약 4조 2천억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경상남도 해안지방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부산항 크레인이 붕괴되고 선박이 침몰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③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KOMPASU}

- 8월 29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곤파스^{KOMPASU}는 2010.9.1~9.2일 서해안을 지나 서울·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 1,670억여 원의 재산피해와 117명의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 태풍의 크기는 소형이었지만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되었으며, 2000년의 태풍 ‘프라피룬’ 이후 10년 만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가장 근접하게 통과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 태풍특보 발령기준

- 우리나라의 태풍특보는 풍속과 강우의 강도와 지속 정도를 기준으로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됩니다.

기상청의 태풍특보 발령기준

태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풍랑·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시속 50km)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시속 70k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시속 61km)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m/s(시속 90km) 이상 예상)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시속 50k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 :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
12시간 동안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

태풍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육상에서 풍속 21m/s(시속 76km)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시속 94km) 이상 예상 (다만, 산지는 풍속 24m/s(시속 86km)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시속 108km) 이상 예상)
 - 해상에서 풍속 21m/s(시속 76km) 이상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5m 이상 예상
-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0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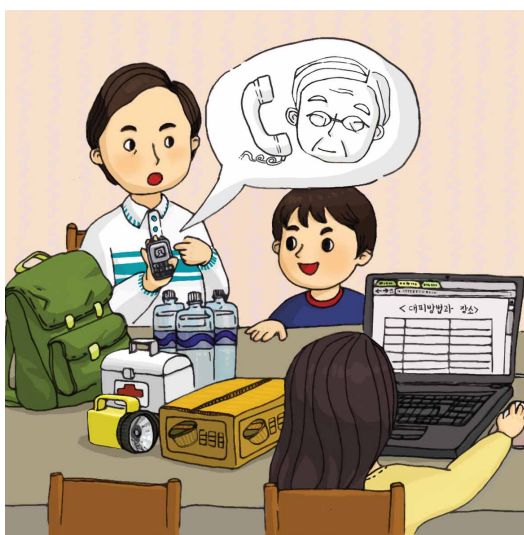
1) 사전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① 태풍 발생 예보 때



- 텔레비전 ·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하여 태풍 정보를 알아 두세요.
 - 생활 주변의 위험 지역 · 시설 등을 미리 알아두세요.
 - 하천변 상습 범람과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구, 감전사고 위험 지역, 공사장 등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주세요.

② 태풍 주의보 때 행동요령



- 저지대 ·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세요.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 비상시 대피 방법과 장소를 미리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응급 약품 · 손전등 · 식수 ·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세요.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 또는 하천변에는 주차하지 마세요.
- 해안 지역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중단하고, 가급적 해안도로 운전을 자제하세요.

③ 태풍 경보 때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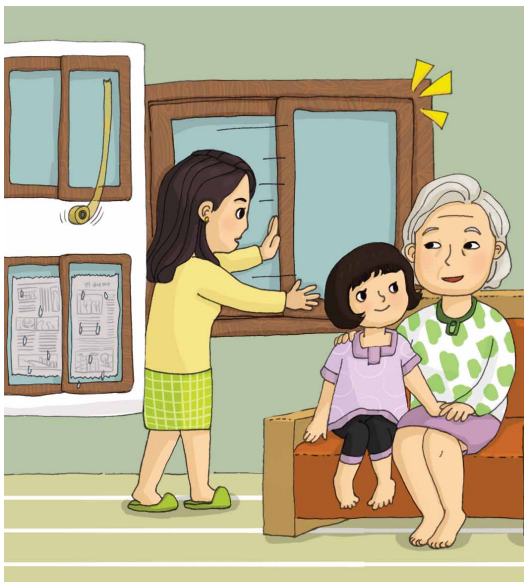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축대·간판 등은 사전에 점검하세요.
-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헛 가구·놀이 기구·자전거 등을 단단히 고정시키세요.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막으세요.

- 건물의 간판과 위험 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마세요.
-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하고, 비탈면 근처에 접근하지 마세요.
- 해안가나 방파제 등에는 출입하지 마세요.

2) 태풍 진행 중에는 이렇게 하세요.

① 가정 내



- 노약자나 어린이는 태풍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세요.
- 출입문과 창문은 꼭 닫고,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 건물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하세요.
- 테이프가 없다면 임시로 젖은 신문지로 창을 덮어 두면 유리 조각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마세요.
- 천둥·번개가 치면 전자기구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 놓으세요.
- 대피할 때는 수도·가스·전기를 반드시 차단하세요.

② 외출 중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 전신주·가로등·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세요.
- 공장·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마세요.
-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을 걸어 다니지 마세요.
-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하세요.
- 계곡의 야영·행락객 등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119 및 구청에 즉시 연락하세요.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한국전력에 즉시 연락하세요.



3) 태풍이 지나간 후, 이렇게 하세요.

① 가정 내



- 침수된 집안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환기시킨 후 들어가세요.
- 전기·가스·수도시설은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생수나 상수도 이외의 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세요.
- 붕괴 위험이 있는 제방 근처는 가지 마세요.
- 가로등과 신호등, 바닥에 떨어진 전선과 맨홀뚜껑은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② 피해 신고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에는 피해 입증을 위해 사유시설 피해사실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세요.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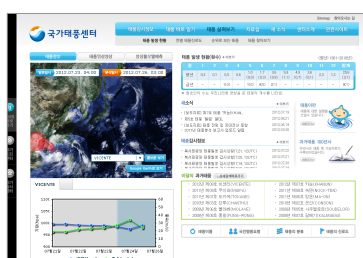
0.5 여기에 연락하세요.

1) 전화 연락처

- 태풍 기상예보에 관계된 정보 : 131(기상청 날씨예보)
- 응급처치 상담, 구급차 연결, 병원 응급실 안내, 응급환자 병원 이송 : 119(중앙 119 구조대)
- 노인 사고 발생 시 신고 : 070-7117-163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 인터넷 홈페이지

-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 태풍감시정보, 국민행동요령 및 태풍 발생 현황 등의 정보 제공
→ www.kma.go.kr (기상청 → 태풍센터)
- **소방방재청** : 태풍 대비 안전길잡이 제공
→ www.nema.go.kr (소방방재청 → 안전교육 → 안전길잡이 → 자연재난길잡이 → **태풍**)
(소방방재청 → 안전교육 → 계절별 안전정보 →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정보 → **태풍**)
- **국가재난정보센터** : 주간 안전사고 경보,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재난통계 등 제공
→ www.safekorea.go.kr (국가재난정보센터 → 재난대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소방방재청



국가재난정보센터